

단합된 힘과 지혜로 새천년 내실있는 협회를...

Towards a Solid Institute of the New Millennium Through Unified Strength and Wisdom

이외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Eui - Koo



대의원 여러분! 역대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특히,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강윤모 건설교통부 차관님!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골목으로 얼룩졌던 지난 한세기가 지나고 대망의 21세기가 시작됐습니다. 의욕에 찬 새천년의 출발점에서 첫 총회를 맞고 보니 전과 다른 특별한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의 총회는 희망찬 내일을 향한 우리 건축사들의 각오와 의지를 확인하고 미래의 비전을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여서 더욱 기대가 앞섭니다.

대의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 건축과 건축사를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 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달라졌으며, 또한 세계건축계에도 국가간의 협정과 룰이 강조되는 등 큰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변화의 흐름은, 심지어 건축에 대한 고정된 가치관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구시대의 경직된 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의식 개혁과 체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시대를 맞은 우리 건축설계분야 역시 때론 과거의 의식과 관행의 개혁으로부터 출발해 선진한국건축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진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제살짜아먹기식 과당경쟁이나 덤핑 등 구시대의 고질적 병폐들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건축사의 명예와 자존심이 빛나는 새시대를 만듭시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이어 새천년이 시작되는 올해의 건축계 화두 역시 시장개방에 따른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문제입니다. 본인은 자격상호인정 문제가 비단 건축분야 뿐만이 아닌 교육, 건설, 통상 등 국가경제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기때, 취임초부터 수차례 걸쳐 정부 당국과 언론에 그 파급영향 등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관련 정보들을 수집, 분석하고, 사회 각분야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이를 참고로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건축관련단체들이 주축이 돼 공청회를 여는 등 현재도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

전문직서비스시장 개방 및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국가간 협상은, 각국 건축계에 구조변화라는 거센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우리 역시 이러한 변화의 돌풍을 비켜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글로벌시대 건축환경의 변화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경우는 발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자격상호인정 문제만 해도 우리나라는, 건축관련 국제기구조직들인 ARCASIA와 UIA에 우리 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각기 가입돼 있어 국제사회에 한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건축계의 여론이 그렇듯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유일의 실무건축사 단체인 우리 협회의 역할과 기능이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선 협회의 UIA가입이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에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입준비작업을 계속해 왔고 결국 이러한 노력끝에 ARCASIA 전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UIA본부에 정식 가입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의 UIA가입은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7천여 회원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그 성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대의원 여러분 !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해 종전 건축사사무소등록제의 신고제 전환, 설계도서신고제 폐지, 협회 설립 및 회원가입 자율화 등을 주요골자로 건축사법을 개정, 곧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이에대해, 군소단체들이 난립해 이익단체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보장 위에서 그 실행이 검토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건축사 회원들이 굳은 결속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전 제도권내에서 보다도 더 활발한 정책개발 및 대정부 활동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전문자격사단체, 영향력 있는 사회전문가단체로의 변신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협회설립 및 회원가입 자율화는 비단 우리 협회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입법화된 것입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임의단체화의 길을 걸어온 여타 단체들의 경우,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조직이 분할 또는 난립되는 일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타 분야들 보다 더 높은 전문성과 인격을 지닌 우리 건축사들이 소아적 이해에 얽혀 이합집산하는 양상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임의단체 든 법정단체 든 협회의 존립은 회원을 위한, 회원의 것이며 강한 결속력만이 우리 모두의 권익과 위상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야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근시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분열된다면 공멸의 결과 밖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더욱이 날이 갈수록 경제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축설계시장도 문호를 개방하게 되므로써 말그대로 적자생존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건축설계업계가 시장경제원리와 개방체제를 기초로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축문화의 저변확대와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중소 건축사사무소들의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 건축자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아울러 각종 업무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회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관련 필요정보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이같이 협회가 새천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내실있는 단체로 거듭나는 데에는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총회에 건축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건축의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협회가 새로운 세기에 걸맞게 거듭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오늘의 총회가, 단합된 힘으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미래를 향해 진일보하는 힘찬 출발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대신합니다.